

행복한교회 목장 예배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목녀님들께 배포해드린 목장모임 표준안 참조)

1. 식사 모임 (애찬)

-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밥=가족, 간식=손님).
- VIP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집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자녀와의 시간 (올리브 블레싱)

- 자녀가 한 명(태아포함)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브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올리브블레싱의 목적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공동체(목장)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찬양 1-2곡을 부릅니다.
- 나이순으로 감사한 것과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눕니다(목회일기에 포함).
-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목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없을 경우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 올리브블레싱 후 어린이 목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목장을 따로 진행합니다.

3. 찬양을 통한 경배(worship) - 찬양부장이 인도

4. 지난주일 말씀 나누기(20분 이내)

- 말씀나누기 진행자가 담당합니다(성경지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기에 초신자가 말으면 좋습니다).
- 모든 목원이 간단하게 돌아가며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누는 중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깨달은 내용을 나눕니다.

5. 연합교회 광고 나누기

- 주보를 활용합니다.(VIP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6. 목회자 칼럼 읽기

- 지난주 목회칼럼을 읽어줍니다.(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 공유)

7. 목장 약속문 함께 읽기

8. 삶 나누기

- 지난주 기도제목에 대해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나눕니다.
- 감사했던 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나눔 시 “기도하면 됩니다” 식의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성경구절만 인용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목장에 나온 지 오래된 분은 깊이는 유지하되 핵심만 간단히 나누고 VIP 등 새로 오신 분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9.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 모든 나눔 후 두 명 정도씩(부부, 가족 등) 묶어서 짧게 중보기도합니다.
- 목원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 마지막에 목자가 장소를 제공한 목원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 선교지와 VIP를 위한 기도

- 후원 선교사님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선교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 VIP는 가족, 친지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자주 만나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VIP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활용합니다.

11. 목회일기 작성

목장모임 말씀 나눔지

(4월14일 주일설교/신명기1:19-33 중 발췌/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려면)

21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지하지 말라 한즉 26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27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 나갈 때 변화무쌍한 풍랑이 우리의 배를 덮칩니다. 그 풍랑에 휩싸여서 믿음의 배가 파선되는 경우도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풍랑을 잘 통과하여 목적지에 다다른 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파선을 피하고 멋진 신앙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申命記)의 신(申)자는 ‘거듭나다, 되풀이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신명기는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 자녀들 세대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부모들의 전철을 제발 밟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중한 태도 같아 보였지만 성경은 그 태도를 신중함이라고 하지 않고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탐이 필요 없을만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 땅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먼저 가봐야 안심할 수 있겠다고 했으니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몫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 나갈 때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순종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 일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뒤에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서 원망했다” 고 말합니다. 그 원망은 단순한 불평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무시와 공격, 정탐꾼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아직 닦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40년 광야 방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 나갈 때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길은 이같은 원망, 비판, 타인에 대한 공격, 염려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특효약으로 성경은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딤후2:8/빌4:6)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날, 장막으로 돌아가서 원망하지 않고 가족들이 손 붙잡고 기도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길! 바로 우리의 장막에 중보기도가 있게 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광야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광야를 돌파해나가시기 때문입니다.(출19:4/신32:11) 광야를 지날 때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훈련, 순종훈련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또한 훈련 중간중간에 쉴 곳도 마련해주시는 자상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신1:33) 그러므로 성도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 나갈 때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길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걷는 길은마다 길이 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날지라도 순종과 기도와 신뢰로 안전하고 안심하는 멋진 인생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지난 주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실천한 것들을 나눠 봅시다. 목자님들은 우리 목장을 더욱 기도하는 목장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목회자 칼럼

가정교회를 하니 많아지는 것들

언젠가 목회자컨퍼런스 개회식 때 휴스턴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께서 가정교회가 잘 정착되고 문화가 된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3년 차를 보내고 있는데, 작년 가을부터 부쩍 이수관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나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목자연합수련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세 가지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웃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꼭 부흥강사가 아니더라도 목회자들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이따금씩 생깁니다. 그럴 때면 그 교회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별말 안 했는데도 온 교우들이 까르르 웃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 교회에 웃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담임목회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성탄절 찬양예배 때 교역자들과 함께 망가져(?) 보았습니다. 몸빼바지를 입고 춤을 추면서 트롯트 복음송을 불렀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설교시간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섬김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매년 망가져 보았습니다. 점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더욱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주일예배 후 점심을 먹을 때는 물론이고, 힘든 봉사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것을 보면 '역시 가정교회가 좋구나'하는 생각에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는, 눈물이 많아집니다. 물론 눈물의 종류는 다양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눈물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보다 오히려 남성들이 더 감성적이 되어서 눈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교회를 하면 많아지는 눈물의 공통점은 한 영혼을 생각할 때 흘리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목원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 그런 눈물이 가정교회를 하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에 나오고 예수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VIP들은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제 부모님, 제 배우자, 제 자녀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내가 믿은 예수님을 함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전도할게요!!"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하든지 웃음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더 많이 흐르는 것 같고,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회로 같은 꿈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손목사—

☎34068대전시 유성구 반석로11번길90-23(반석동661)

☎(042)826-9191~4, FAX(042)822-0691

http://www.inhappy.org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는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회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첫째 주는 제외)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3면에 있는 <교회등록절차>를 보시고 새가족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감사

일일특세 및 공동체 금식으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선교기도회

4월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1달에 한 번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는 시간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6기 기도의 삶 재현신

제6기 기도의 삶(4월29일~7월28일)에 많은 재현신을 부탁드리며, 계단 벽면에 붙어 있는 기도시간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제3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중보기도는 교회의 영적기류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성도가 10개 중보기도팀 중 한 기도팀을 선택해서 함께 기도할 때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QR코드 신청/ 어려우신 분들은 필경대에 있는 안내지에 이름과 연락처 적으셔서 사무실에 내시면 됩니다.)

5. 신관중앙목장 선교후원행사

오늘 1층 로비에서는 신관중앙목장(정효섭목자/노윤정목녀)이 선교후원을 위해서 커피와 차 행사를 갖습니다. 신관중앙교회(공주)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유아세례식

어린이주일(5월5일)에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은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은 4월24일, 5월1일 수요기도회 후 있습니다.

7. 총목자모임

4월 총목자모임은 27일(토)에 있습니다.

8. 목장탐방

몽골목장(이수현목자) 담임목회자 탐방이 금요일(19일)에 있습니다.

9. 2024년 가정교회 평신도세미나 안내

1)5월(화성,전주,안양) 6월(인천,순천,부산,판교,구미,대전,화성) 7월(대전,중평) 8월(충주,천안,인천) 일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오주현/김보아집사님(기쁨목장)이 19~21일 서울다운교회로 평세 다녀오십니다.

10. 교우소식

1)결혼: ①박태준형제(박명일/유지향집사)와 신유경자매의 결혼예식이 4월20일(토) 오후3시20분에 루이비스컨벤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②정유라자매(수마트라목장)와 장혜석형제의 결혼예식이 4월27일(토) 낮12시에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더케이웨딩홀) 3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11. 교역자 동정

1)제144회 서대전노회 정기회: 담임목사, 오펜수목사 참석/ 내일 오전9시30분(시온성교회)
2)국방과학연구소 신우회 설교: 담임목사/ 17일(수)

성구암송

신명기 1: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